

제목: "미래를 준비하는 자"

말씀: 사도행전 14장 19-28절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여야 할 미래는 세상 적으로 이해할 때에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냐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 1) _____에 머물러야 합니다. (22절)
- 2) 많은 _____을 겪어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22절)
- 3)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_____해야 합니다. (23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지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지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개척 된 교회 (뉴저지 지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 (Hosea 10: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갈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도행전 14장 19-28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Acts 14: 19-28 신약 212 페이지 Presider
- 말 씬 "미래를 준비하는 자"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visionary believers Rev. Kim
-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다 갈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갈 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언제 끝이 날까)

2-3 달이면 끝이 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7개월을 넘어간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가을은 잊지 코로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늘이 가려진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을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능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의 법칙만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를 전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캄캄함이 아니라 작은 터널에 불과 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아감을 얻는 훈련의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다. 세상이 요동을 칠 때가 한 두 번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동부에 있는 채사픽 터널(Chesapeake Bay Bridge-Tunne)이 있다. 그 터널이 자그마치 23마일이다. 2-30분은 바닷물 밑으로 달려 가야하는 터널이다. 그곳을 가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답답한 곳이다. 내가 바닷물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터널에 끝이 없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물 밑으로 가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지만 그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의 끝에는 밝은 빛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또한 앞으로 겪을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또 다른 가을을 맞으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든지 아니면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만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39장 18절) 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가을을 멋지게 맞고 웃음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 만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새로운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교육부 사역의 시작되도록
- 6)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7)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섬기는 프랑스 교회의 부흥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 개척과 섬기는 목회자들의 안전
깊은 뿌리교회: 교회 이전과 새 학기 사역이 잘 진행 되도록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